

폐쇄된 상무소각장, 변화의 첫걸음 댄다

광주시, 공장동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최우수상 250만원 소각장 개방 찾아가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상무굴뚝축제' 개최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광주 상무소각장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변화의 첫걸음을 댄다.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이며, 굴뚝이 있는 공장동은 건물을 살려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한다는 큰 틀의 청사진(광주일보 2019년 8월 22일자 2면)이 제시된 바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무소각장(공장동)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찾아가는 '상무굴뚝축제'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 광무상생카드와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응모 유의사항과 결과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 열리는 찾아가는 프린지페스티벌인 '상무굴뚝축제'는 '쓰레기를 태우는 굴뚝에서, 문화를 피워내는 굴뚝'이라는 슬로건으로 상무소각장 내 공장동의 쓰레기반입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이어진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인간과 환경 공존의 중요성을 다

양한 문화예술로 표현하고, 지구촌 환경 메시지를 문화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자리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청소년 버스킹 공연, 관악브라스 밴드, 디제이댄스, 플라스크를 삼킨 거북이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및 페이스페인팅, 청소년 놀이체험,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상무소각장은 지난 1996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2000년 9월 소각장 준공, 2001년 12월 사용개시 신고 수리돼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해 왔다. 가동 이후 인근 폐쇄를 요구하는 집

단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광주 중심부에 소각장 존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 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의견까지 보태지면서 지난 2016년 폐쇄된 후 방치됐다.

광주시는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소통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시의회, 주민들과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유류공간 문화재생 연구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상무소각장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추진되는 등 폐쇄된 소각장을 시민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 2016년 폐쇄된 뒤 방치된 소각장 전경.

광주 고등학교 '무리한 스펙쌓기' 논란

이경호 시의원 "10곳 중 9곳 학생수보다 상장수 더 많아"

정순애 시의원 "동아리 지원 편차"



이경호 시의원 정순애 시의원

광주지역 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서 학생수보다 상장수가 더 많아 '무리한 스펙쌓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광주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액이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민중·북구2) 의원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내상(賞) 수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통틀어 67개교 중 59개교에서 연간 수여된 상장수가 학생수보다 더 많았다. 비율로는 88%다. 2년 연속인 곳도 67곳 중 56곳(83.5%)에 달해 연례화, 관행화된 측면이 강했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K고가 학생수 287명에 상장은 교과와 비교과 합쳐 43건에 1439장으로 상장수가 학생수보다 5배나 많았다.

특히 A고는 학생수는 287명이지만 지난해 43건에 걸쳐 학생수의 5배에 달하는 1439장의 상장이 수여됐다. B고는 학생수(700명)의 4배인 2077장, C고는 학생수(741명)의 3.9배인 2924장을 줬다.

상장 수가 학생수의 3배 이상인 학교도 2017년 8곳, 지난해 6곳이나 됐다.

학생부종합평가 등 수시 전형에서 이른바 스펙을 위해 상장 남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교내상 수상자수

가 전교생보다 많다는 것은 상장 남발이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정순애(민중·서구2) 의원은 5일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에 개설돼 운영 중인 창의 체험 동아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계획서를 내고 개설한 자율 동아리로 나뉜다. 광주 학교 평균 동아리는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37개, 고등학교 82개이다.

정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대학 입시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역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낙지목장 조성 생산 4배 소득 8배 증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갯벌 16곳 10ha에 조성

낙지목장 조성 후 서식 구멍이 평균 3-10배까지 증가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낙지목장에 방사한 어미낙지 숫자에 따라 어가 소득도 높아졌다.

낙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전남 곳곳에 조성한 낙지목장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지목장을 조성한 후 생산량은 4배, 소득은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8년 어미낙지 교잡·방사를 통한 갯벌 낙지목장 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지목장 자원 조성사업은 낙지 전국 생산량이 10년 전 연간 7879t에서 지난해 5725t까지 줄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낙지 생산량도 2008년 5477t에서 지난해 4046t으로 감소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갯벌 16곳 10ha에 낙지목장을 조성하고 어미낙지 9452마리를 방사했다.

이 기간 낙지목장의 낙지 개체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서식 구멍을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의 낙지목장 조성 전 연간 생산량은 12t(소득 3억5000만원) 정도였지만 조성 후 생산량은 81t(24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어미낙지 550마리를 방사해 2억60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면, 2016년에는 어미낙지 1800마리 방사에 8억6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2017년에는 3100마리를 방사해 14억8000만원, 지난해에는 어미낙지 4000마리를 방사해 19억20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낙지목장 사업을 고밀도 양식으로 바꿨다.

기존 저밀도 양식으로 설치했던 목장시설을 보호 그물 시설과 먹이 공급을 통한 고밀도 양식사업으로 확대했다. 환경조사 분석 등을 거쳐 신안군 일원의 4곳 8ha를 고밀도 시험 양식 사업지구로 조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나서

여수세계박람회장 TF 사무실 개소

전남도가 2022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전에 나섰다. 전남도는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제관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 TF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태스크포스 사무실에는 도청 1명, 여수시청 2명, 단체 비상근 관계자 6명 등 9명이 근무한다. TF팀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COP28 유치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국민 서명 운동 전개, 문화행사, 국회의원 초청 국회토론회 추진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환경산업국장을 단장으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5개 시·군 및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경남 5개 시·군 공무원원과 민간단체, 광역의원, 국제관계대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총 26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COP28 유치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 추진단은 그동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강원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15명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T/F팀은 경상남도 및 유치 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COP28 유치 범추진위원회를 구성, 12월 초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선도 방안 등을 담은 7차 시정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광주시의 역점 시책인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정책 방향으로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생산·관리·이용 정책 수립, 데이터 중심 증거 기반 제도 도입, 공공데이터 신뢰성 강화 등 3대 기본방향에 따라 2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AI 선도 방안 등 7차 권고문 발표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